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2월 3주~12월 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란드 물가상승률, 11월 전년동월비 2.5% 기록(12.15)
 - 폴란드 통계청(GUS)에 따르면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2.5%로 집계되어, 잠정치 대비 0.1%p 상향 조정
 - 이는 10월(2.8%)과 9월(2.9%) 대비 둔화된 수준으로, 물가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반영
 - 아담 클라핀스키 폴란드 중앙은행(NBP)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수년 간 중앙은행 목표치인 2.5%(±1%p 범위) 내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
 - 정부가 8월 채택한 2026년 예산안 기준, 내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.1%로 예상
 - 한편 중앙은행은 11월 7일 발표한 최신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2025년 평균 3.7%, 2026년 2.9%, 2027년 2.5%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크라이나, 11월 실질 GDP 5.3% 성장 기록(12.12)
 - 우크라이나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, 11월 실질 GDP 성장을 5.3% 기록, 러시아의 지속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10월 2.3% 대비 상승
 - 성장은 농업, 국내 무역, 건설, 가공 산업 주도로 이루어졌으며, 전력 공급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 활동 지속
 - 국제 원조 기반 복구·기업 지원 사업이 국내 생산 확대에 기여, 손상 인프라 복구 예산 배정, eReconstruction·eOselya 주택 프로젝트, 국내 방위 산업 조달 등이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 - 경제 구조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,

장기적으로 경제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

- 우크라이나 중앙은행(NBU), 기준금리 15.5% 여섯 차례 연속 동결(12.12)
 - NBU는 기준금리를 15.5%로 유지하며, 이는 흐리브나화 금융상품 매력 제고, 환율시장 안정,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, 중기적 5%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
 - 11월 소비자·근원 인플레이션은 연 9.3%로 둔화되었으나,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 향후 하락 속도는 완만할 전망
 - 올해 들어 458억 달러 공식 금융 지원이 제공되었으며, 연말까지 50억 달러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 준비금 유지와 예산 집행 안정에 기여
 - 다만 2026~2027년 지원 불확실성, 전쟁 경과, 에너지 인프라 파괴, 추가 재정 부담, 노동력 부족 심화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
 - NBU는 2025년 3월 이후 금리를 15.5%로 유지 중이며, 이는 2024년 12월 이후 세 차례 금리 인상 후 결정된 수준
 - 이전에는 2023년 7월부터 7단계 금리 인하를 통해 25%에서 13%로 낮춘 뒤 약 반년간 동 수준 유지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Porr-Termomeccanica Ecologia, 폴 WtE 건설 165백만 유로 수주(12.8)
 - 오스트리아 건설사 Porr와 이탈리아 Termomeccanica Ecologia가 PreZero Polska 산하 EnergiaNova로부터 Włocławek 에너지센터 내 신규 폐기물 발전소(Waste to Energy, WtE) 건설 계약 확보
 - 사업 기간은 29개월이며, 양사는 이전 Rzeszów·Gorlice 프로젝트에 이어 폴란드 내 세 번째 WtE 시설 구축 사업 수행
 - Zielna Street 인근 지역 난방 공사 부지에 6개 건물 및 관련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
 - 연료 추출·저장 시스템, 보일러, 배기가스 정화, 증기터빈, 슬래그 저장설비 등 기술 패키지를 포함하며, 상세설계 - 시공 - 시운전 - 인도까지 일괄 수행

- 시설은 연간 9만 톤의 비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고, 약 70만 GJ의 열과 45,000MWh 전력을 생산할 계획
- 생산한 열은 전량 지역 난방망에, 전력은 국가 전력망에 공급되며, 인구 약 10만 명의 Włocławek의 석탄 사용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

○ 폴란드 환경부 펀드에 에너지저장설비(ESS) 183개 사업 선정(12.9)

- 폴란드 환경부 산하 에코펀드가 Modernisation Fund 예산 41.5억 즈워티 규모 공모에서 183개 에너지저장사업을 예비 선정
- 이번 공모는 “전력망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전력저장설비 및 연관 인프라 구축”을 목표로 하며, 총 480건의 신청 중 고득점 사업이 선정됨
- 총 700억 즈워티 규모의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, 20GW/122GWh 이상의 에너지저장 용량을 대상으로 한 지원 요청액(280억 즈워티)은 예산 대비 7배 초과
- 예비 선정된 사업은 최소 2MW/4MWh 이상의 저장설비 설치를 포함하며, 총사업비의 최대 45%까지 보조금 지원 가능(중견기업 +10%p, 중소기업 +20%p 추가 지원)
- 전체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 또는 시장금리 대출도 제공 가능하며, 선정된 사업자는 조건 승인 후 2025년 말까지 에코펀드와 보조금 계약 체결 예정

○ PGE, 중부지역 60MW 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단지 운영 인가 확보(12.08)

- 폴 전력공기업 PGE가 Łódź주에 위치한 50MW Kleszczow 및 10MW Tyszki Wądolowo 태양광(PV) 발전소 2기에 대한 운영 허가 취득
- Kleszczow(부지 50ha)은 연간 약 5,300만 kWh 생산으로 약 25,000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 가능하며, PGE 그룹 내 Jeziorko(100MW, 향후 220MW 확장 예정)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
- Tyszki Wądolowo 설비는 연간 약 11,000MWh 생산으로 약 5,000 가구 전력 공급 가능

- 두 발전소는 이미 지역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 중인 상황이며,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기여
- PGE는 추가로 Wielkopolska 지역 10MW Tarchaly Wielkie PV 발전소를 2025년 말 가동 목표로 준비 중
- PGE Energia Odnawialna는 풍력 21기, 수력 29기, 양수수력 4기, 태양광 43기를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약 2,627MW

○ TAURON, 11개 BESS 구축 위해 538백만 즈워티 지원 확보(12.10)

- 폴란드 전력회사 TAURON, 국가환경보호수자원기금(NFOŚiGW)이 운영하는 Modernisation Fund 공모에서 약 5억3,800만 즈워티 지원 대상으로 선정
- 지원금은 최소 2MW/4MWh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설비(BESS) 11기 건설에 사용되며, 올해 말까지 보조금 계약 체결 등이 조건
- TAURON 그룹은 총 346MW / 약 1.5GWh 규모 저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, 투자비의 35~45% 범위에서 보조금 수령 가능
- TAURON은 BESS 확대가 전력계통 안정화, 재생에너지 통합 확대, 전력계통 보조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등 국가전력망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
- 주요 구축 예정지는 Laryszów(84MW/358MWh), Ogrodzieniec (55MW/237MWh), Bałków(54MW/242MWh), Twardogóra (42MW/179MWh), Dąbrowa Środkowa(45MW/192MWh) 등
- 설비 건설은 2026~2028년 추진 예정이며, 감독위원회 승인 및 협약 체결 시 지원금 확정
- TAURON은 2030년까지 700MW, 2035년까지 1.4GW 규모 ESS 확보를 목표로 하는 그룹 전략(2025 - 2035) 이행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

○ 폴란드, Tauron 4개 에너지저장시설(BESS) 연내 가동 준비(12.11)

- Tauron은 올해 BESS Przewóz, BESS Dąbie, BESS Proszówek을 가동, BESS Kuźnia Raciborska는 내년 초 가동 예정이며 총 저장용량은

76MWh임

- BESS Przewóz와 BESS Dąbie(각 4MW/16MWh)는 크라쿠프 수력발전소 부지에 설치되어 지역 핵심 저장 인프라로 운영, BESS Proszówek(8MW/16MWh)은 태양광 발전 변동성 완화 및 지역 재생 에너지 효율 제고에 기여할 예정임
 - BESS Kuźnia Raciborska(6.9MW/28MWh)는 실레지아 지역 전력망 안정화에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며 보조금 및 공동투자 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·추천된 프로젝트임
 - Tauron은 4개 시설 가동으로 총 22.9MW/76MWh 규모의 저장자산을 확보
 - 일부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총 183개 에너지저장 프로젝트가 보조금·저리용자·시장기반 대출 형태의 자금지원자격을 확보함
- PSE, 288백만 즈워티 규모 Rogowiec 변전소 현대화 계약 체결(12.9)
- 폴 국영 전력망 운영사 PSE가 Przedsiębiorstwo Agat과 Rogowiec 400/220kV 변전소 현대화 계약을 체결했으며, 계약 금액은 288.4 백만 즈워티
 - 사업 범위에는 Rogowiec 변전소 220kV 개폐기 설비의 전면 재건 및 확장 공사가 포함되며, 국가 전력계통 안정성 개선이 핵심 목표
 - Rogowiec 변전소는 Bełchatów 발전소 대부분의 설비가 연결된 핵심 인프라로, 현대화 작업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단계별로 수행되어 높은 수준의 운영 안정성·신뢰성 유지가 요구됨
 - Agat은 상세설계, 시공·조립, 주요 자재·장비 공급(투자자 제공 제외), 준공·시공 기록 문서 작성 등 EPC 전 과정 수행 책임을 보유
 - 전체 프로젝트는 계약 체결 후 72개월 이내 완료될 예정
 - 본 사업은 PSE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2037년 까지 5,000km 이상 신규 송전선 건설, 31개 변전소 신설, 110개 기존 변전소 현대화 등이 추진될 계획
 - 이를 통해 폴란드는 유럽 최고 수준의 현대적·고신뢰성 전력 전송망

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Agat은 35년간 산업·에너지·연료·철도·통신 분야에서 다수의 EPC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한 폴란드 전문 엔지니어링·시공 기업
- S17 바르샤바 동부 외곽순환도로, 터널 포함 설계 연구 입찰(12.10)
 - 폴 국가도로청(GDDKiA)이 S17 바르샤바 동부 외곽순환도로 (Drewnica~Warszawa Wschód, 총 16km) 구간의 기술·경제·환경 타당성 조사(STEŚ) 및 환경 허가 확보를 위한 입찰 접수를 완료
 - 총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, 최저가는 Europrojekt Gdańsk가 제시한 약 602만 즈워티, 최고가는 Promost Consulting·DOHWA Polska ENG 컨소시엄의 1,466만 즈워티로, 약 2.4배 수준의 가격 차 확인
 - 제안서 평가는 다기준 방식으로 진행되며, 평가 항목은 △가격 40% △시설 관리 방법론 10% △도로 설계 경험 15% △터널 설계 경험 15% △환경팀 경험 10% △지질팀 경험 10%
 - 절차가 이의제기 없이 진행될 경우 2026년 2분기 중 계약 체결이 예상되며, 설계 기간은 48개월, 전체 사업의 공사 완료 목표는 2030년으로 설정
 - 주요 설계 범위는 외곽순환도로 노선 대안 검토, 환경허가 신청 자료 작성, 정밀 지질조사, 터널 적용 가능성 평가, 사회·환경·경제적 분석을 통한 최적 노선 제안, 주민 대상 공정보고·소통 활동 등
 - 계획된 시설 구성에는 왕복 3차로의 교통 체계, 도로 교차로, 교량·터널 등 주요 구조물, 지역도로 연계망, 배수·조명·환경보호 시설, 보행자 및 자전거 인프라 등이 포함
 - 본 구간은 바르샤바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위한 최종 주요 구간으로, 터널 설치 여부를 포함한 복합적 설계·환경 분석이 중점적으로 수행 될 예정



○ Orlen, 폴란드 전역 부동산 68건 매각 절차 착수(12.8)

- Orlen은 폴란드 전역의 건물 및 미개발 부지 68건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, 이들 자산 중 상당수는 과거 연료 생산·저장·유통 용도로 활용되었던 시설임
- 매입 희망자는 2026년 1월 23일까지 서면 제안서와 함께 사회보험 공단(ZUS)·세무서 관련 증빙 제출 필요, 선정 기준은 가격이 핵심이며 결과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발표되고 최대 6개월 연장 가능
- 최고가 매물은 크라쿠프 구시가지 내 위치한 행정·사무용 건물로, 약 2,300m²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되며 지역 문화재로 등록, 매각가는 2,700만 즈워티 이상
- 또 다른 고가 매물로는 브로츠와프 Rejtana 거리 소재 건물로, 지상층 상가·상층부 사무공간으로 구성,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시작가는 2,164만 즈워티
- 브로츠와프 Kołłątaja 거리 건물도 18백만 즈워티 이상 책정됐으며, 중앙 아트리움·천창·녹지 및 수경시설 등 독특한 실내 구조를 보유, 과거 호텔(Kaiserhof·Reichshof)과 CPN·Orlen 지역본부로 사용된 이력이 있음
- 매각 대상 부지는 크라쿠프 외에도 우치, 루블린, 푸와비, 바우브지흐, 레그니차, 라돔, 오플레, 츠엥스토호바 등 다수 도시로 분포

○ Trivanta, 폴 태양광·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17백만 유로

자금 조달(12.11)

- 독일계 재생에너지 개발사 Trivanta는 폴란드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독립형 및 병행형(Co-located) 태양광(PV)·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총 17백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
- 자금 조달은 지주회사에서 Revolving Bridge Facility 자금으로 조달, Capcora가 단독 금융 자문을 수행
- 해당 재원은 CfD(발전 차액 계약) 기반 10MWp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에 투입되며, 이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20MWp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와 8MW/44MWh 규모 BESS 결합 프로젝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
- Trivanta는 WBS Power Group의 지원을 받는 유틸리티 규모 에너지 인프라 개발 플랫폼으로, 이번 조달은 폴란드 내 태양광 및 저장장치 포트폴리오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

○ Orlen, 브워츠와베크에 자사 최초 현장 설치형 ESS 구축 착수(12.11)

- Orlen은 자사 최초의 현장 설치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을 브워츠와베크(Włocławek) 가스터빈·복합화력(CCGT) 발전소 부지에서 시작, 인근 태양광(PV) 설비와 2026년 연계 운영 예정
- 신규 ESS는 2MW/4MWh 규모의 LFP(리튬인산철)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며, 장수명·내열성·안전성을 기반으로 수천 회 충·방전이 가능해 운영비 절감 기대
- ESS는 태양광 발전 피크 시간대 전력 저장 후 일조량 감소 시 계통에 재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 유연성·주파수·전압 안정화 등 전력 보조 서비스 제공 가능
- Orlen은 2035년까지 총 1.4GW 규모 ESS 구축을 목표로 하며, 이는 약 30만 가구에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준, 현재 그룹의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은 2GW 근접
- Unimot Energia i Gaz가 해당 EPC를 수행하며, 오스트루프 비엘코 폴스키(Ostrów Wielkopolski) 연료 단지에도 유사 프로젝트 추진 중, 환경기금(NFOŚiGW) 지원도 연계
- Orlen 자회사 에네르가(Energa)는 Puck·Bystra·Czernikowo ESS 및

Żydowo 지역 양수발전소 운영 중이며, 13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추가 지원을 신청

- 브워츠와베크는 Orlen 투자 중심지로, 2025년 SMR(BWRX-300) 기반 폴란드 최초 소형 원전 부지 선정 지역이자 Orlen 그룹 비료·플라스틱 생산사 Anwil 본사가 위치해 ‘그린 에너지 허브’로 부상 중

○ 바르샤바, 소비에트 건물 단지 현대화 설계 공모 실시(12.12)

- 바르샤바시는 100 ul. Sobieskiego 소재 전 소련·러시아 점유 건물 단지에 대한 건축·도시계획 설계 공모를 발표
- 공모 대상은 기존 등록문화재 건물 내부 구조 개조, 외부 형태 보존, 현행 규정 준수, 공간 활용 극대화 및 신규 건물(기존 파빌리온·옛 유치원 철거 예정) 설계 포함
- 주변 지역 개발 방안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, 공모는 2단계로 진행됨
- 1단계에서 연구 설계 제출 후 심사위원회가 5개 안 선정, 2단계에서 본 설계 제출 후 최종 당선작 결정
- 당선작은 2026년 6월 발표 예정이며, 설계 문서 계약은 2026년 10월 체결, 설계 완료 목표는 2027년 8월로 예정됨
-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예산 132백만 즈워티(약 460억원)가 시 예산에서 확보됨

○ 폴 정부, 원자력 확대 기초 명확화 및 SMR 국가 지원 공식화(12.15)

- 폴 정부 전략 에너지 인프라 담당 특임대표 브로흐나(Wojciech)는 국가 에너지·기후계획(NECP), 폴란드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(PPEJ), SMR 로드맵 등 핵심 전략 문서에 원자력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
- 이번 주 제출 예정인 NECP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원전 용량이 반영 되며,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(SMR)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룰 방침
- 기존 기후환경부 초안에서는 2040년 원자력 발전량을 27TWh로 제시했으나, 에너지부는 원자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검토 중
- SMR 로드맵은 향후 수주 내 발표 예정으로, 투자자·정부·SMR 산업 간

협력 틀과 절차를 규정하는 유연한 프레임워크 성격의 문서가 될 전망

- 브로흐나 차관은 “SMR을 포함해 어떤 원전도 국가 지원 없이는 건설 될 수 없다”고 언급하며, 발전차액계약제도(CfD)가 기본적인 지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함
- SMR 투자에 대한 CfD 등 지원 방식 논의는 2026년 중 본격화될 예정이며,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CfD 제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
- 개정된 폴란드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(PPEJ)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의 첫 원전(Lubiatowo-Kopalino) 국가보조 승인 결정을 반영해 2026년 1분기 정부에 제출 예정
- EC 결정은 제2 원전 투자자 선정 방식, 국가 지원 조건, 전력 판매 모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, PPEJ 업데이트의 핵심 근거로 작용
- 에너지부는 PPEJ 공청회 의견 검토를 거의 완료했으며, EC 결정 내용을 반영해 2026년 1분기 중 최종안을 채택할 계획
- 아울러 폴란드 정부는 2026년부터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에너지 정책(PEP2050) 수립 작업도着手할 예정

○ 덴마크 Eurowind Energy, 폴란드 풍력·태양광 370MW 개발 파이프라인 인수(12.15)

- 덴마크 재생에너지 개발사 유로윈드 에너지는 폴란드 사보윈드(Sabowind)로부터 총 370MW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(PV) 개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과 12MW 규모의 운영 중인 풍력 터빈 6기를 인수
- 인수 대상에는 개발 단계의 육상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가 포함되며, 유로윈드는 이를 통해 폴란드 내 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
- 이번 거래와 함께 사보윈드 폴란드 지사의 숙련된 전문 인력 3명이 포즈난(Poznań)에 위치한 유로윈드 현지 팀으로 합류할 예정
- 유로윈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, 장기적 성장성과 기술 통합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산 인수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
- 회사 측은 이번 인수가 단순한 설비 용량 확대를 넘어, 현지 파트너십

강화와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을 대비한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부각

- 한편 유로윈드는 최근 폴란드 북부 바르토시체(Bartoszyce) 지역에서 74.7MW 규모의 신규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도 공개

○ Grupa Azoty, Orlen에 자회사 Polyolefins 매각 역제안 제출(12.15)

- 폴 국영 화학기업 Grupa Azoty는 12월 15일, Orlen이 제시한 폴리머리 폴리체(Polimery Police) 사업 인수 제안에 대해 보다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담은 비구속적(counteroffer) 역제안을 공식 제출
- 앞서 Orlen은 10월 중순, 그루파 아조티의 자회사인 Grupa Azoty Polyolefins(GAP) 지분 100%를 총 1022백만 즈워티에 인수하는 비구속적 제안을 제시
- 역제안에서도 거래 총액은 동일한 1022백만 즈워티로 유지되었으나, 거래 성사를 위한 구체적 조건과 일정이 추가로 명시
- 핵심 조건으로는 ▲GAP의 구조조정 절차 완료 및 채권·채무 정리 ▲Orlen의 GAP 지분 100% 인수 보장 ▲Orlen이 만족할 수준의 실사 (Due Diligence) 결과 ▲필요한 기업·행정 인허가 획득 등이 포함
- 또한 Grupa Azoty는 향후 GAP의 실적에 따라 추가 대금을 지급받는 '언아웃(Earn-out)' 메커니즘 도입을 요구, 구체적 금액과 지급 조건은 최종 거래 문서에서 규정 예정
- 역제안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, 거래 종결 목표 시점은 Orlen의 제안과 동일한 2026년 6월 30일
- 구조조정 합의 인가 절차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완료를 전제로 하며, 만약 정식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종 종료 시한은 2028년 7월 31일로 설정
- 이번 거래는 대규모 투자로 재무 부담이 커진 폴리올레핀 사업에서 철수 하려는 Grupa Azoty의 구조조정 전략과, Orlen의 석유화학 사업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영국, 우크라이나 녹색기술에 1,700만 파운드 투자 발표(12.10)

- 영국과 우크라이나가 InnovateUkraine 프로그램 2단계 착수를 발표, 녹색기술 분야 14개 혁신 프로젝트에 총 17백만 파운드를 투자 결정
 - 해당 프로젝트들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지속가능성·안보 강화를 위한 저탄소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며, 글로벌 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2025년 12월부터 24개월간 영국·우크라이나·국제 기업 및 학술기관이 협력하여 확장 가능한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
 - 주요 프로젝트는 지속가능 건설, 장기 에너지 저장, AI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, 시멘트 분야 탄소배출 저감 기술, 농업 폐기물 기반 에너지 전환 기술 등을 포함
 - 1단계 InnovateUkraine는 난방·바이오가스·폐기물 재활용·에너지 저장 등 12개 프로젝트를 조정했으며, 대부분 추가 투자 유치 후 기술 개발을 확대 중
- EBRD, 우크라이나 인프라 펀드에 60백만 유로 투자(12.11)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은 총 350백만 유로 규모의 Amber Dragon Ukraine Infrastructure Fund I에 최대 6,000만 유로를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
 - Dragon Capital과 영국계 Amber Infrastructure가 공동 운용하며, 인프라 분야 전용 투자 플랫폼으로 조성됨
 - 투자 범위는 주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가 중심이며, 추가로 교통·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도 포함될 예정
 - 펀드는 2026년 1~2월부터 본격 투자에 착수하며, 프로젝트당 30백만~70백만 유로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함
 - 9월에는 유럽투자은행(EIB)이 50백만 유로 참여를 완료했으며, IFC도 최대 40백만 유로 투자까지 투자할 계획임
 - 이번 EBRD 참여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을 위한 국제 공공·민간 금융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평가됨
- IFC, 우크라이나 보험사 2곳 지분 인수 계획(12.11)

- 국제금융공사(IFC)(국제금융공사)가 오스트리아 Vienna Insurance Group(VIG) 자회사인 Knyazha Vienna Insurance Group과 Ukrainian Insurance Group 지분 약 20%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발표
-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VIG의 우크라이나 보험시장 확대와 현지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- IFC는 제품 혁신, 판매 개발, 디지털 전환 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며, VIG는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필수 보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예정임
- 우크라이나는 VIG의 중부·동부 유럽 사업 내 핵심 시장으로, 21년 운영 경험과 11% 시장점유율로 역내 보험사 중 2위
- VIG의 세 개 법인(Knyazha Vienna Insurance Group, Ukrainian Insurance Group, Knyazha Life VIG)은 지난해 총 128백만 유로 규모의 보험료를 기록함

○ EU, 2040 전력망 현대화 계획 발표 및 수소 인프라 투자 강화(12.10)

- EU 집행위원회는 1조 2천억 유로 규모의 전력망 현대화 전략 'Grids Package'를 발표, 전력망 혀가 지역 해소와 노후 송배전망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
- 전략에는 8개 국경 간 '에너지 고속도로(Energy Highways)'가 포함되며, 수소 운송 및 저장 인프라를 우선 사업으로 지정, EU 에너지 시스템에 수소를 본격 통합할 예정임
- 수소 인프라 투자 규모는 2,400억 유로로 설정되었으며, 전체 패키지는 2040년까지 총 1조 2천억 유로를 송배전망 현대화에 투입할 계획임
- 주요 프로젝트로 튀니지·이탈리아·오스트리아·독일을 연결하는 수소 회랑(Corridor)과 포르투갈-독일 수소 경로가 지정되어 강력한 조정 및 정치적 지원 계획
- EU는 재생에너지 및 저장 프로젝트 혀가가 평균 9년 지연되는 문제를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해결하고, 2030년까지 전력 연계 목표(15%)를 충족하지 못한 14개 회원국 개선을 지원할 계획임
- 주요 전력망 개선 과제로 피레네 산맥 횡단 연결, 키프로스 본토

연계, 발트 해 송전망 완성 등이 포함

- EU 에너지 규제기구 ACER는 지난 4월 약 6천만 명에 영향을 미친 이베리아 정전을 사례로 들어 노후 인프라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함
 - Eurelectric과 CAN Europe은 장기 저장설비(펌프식 수력 등) 확보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
 - 집행위원회 추정 투자액은 배전망 7,300억 유로, 송전망 4,770억 유로이며, 재원 조달은 EU·국가 예산, 민간자본, 국경 간 비용 분담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중
- EBRD·EU, 우크라이나 취약계층 대상 주거 공급 사업 지원(12.10)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과 유럽연합(EU)은 우크라이나 주거 복구를 위해 1억 유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, 확장 가능한 취약계층용 주택 공급 플랫폼 구축을 추진
 - 사업은 실향민(IDP)과 전쟁 참전용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2029년까지 키이우 지역에 약 1,8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
 - 프로젝트는 Hansen Ukrainian Mission(HUM)이 주도하며, 임대형과 임대 후 매입형 모델을 결합해 장기적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
 - EU는 Ukraine Investment Framework(UIF) 보증을 통해 일부 초기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, EBRD는 기술협력(TC)을 통해 사회·환경 관리와 인력 개발을 지원함
 - 기술협력에는 실향민 대상 견습 프로그램과 임차인 지원 계획 마련이 포함되며, 슬로바키아가 출연한 TC(Technical Cooperation)기금 및 다자 기부금(Action for Equality and Gender)이 재원을 제공함
 - EBRD는 본 투자를 통해 우크라이나 주택 부문 전략을 이행하고, 민간 주도형 확장 모델을 시범 적용해 재건 과정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함
 - EU - EBRD 협력은 사회적 주거 복구를 촉진하고,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며 에너지 효율 기준 준수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

○ Norfund, Dragon Capital 펀드에 15백만 달러 투자(12.10)

- 노르웨이 개발금융기관 Norfund는 12월 10일 Dragon Capital이 운용하는 Rebuild Ukraine Fund(REBUF)에 15백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, 해당 펀드는 250백만 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
- Norfund의 투자는 1차 클로징 단계에 포함되며 IFC와 EBRD 등 주요 개발금융기관이 각각 2,500만 달러를 출자할 예정
- REBUF는 우크라이나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자본 및 quasi-equity 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투자 분야는 소매·서비스, 헬스케어, 금융 서비스, 건축 자재, 농업 관련 산업임
- 펀드는 기업 성장과 혁신, 핵심 공급망 복원에 중점을 두며 현지 팀 기반 운영과 전시 환경에 대응한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
- Norfund는 이번 투자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두 번째 투자라고 밝히며, 11월에는 Dragon Capital 및 EBRD와 함께 리비우 M10 산업 단지 확장 프로젝트에 약 850만 유로를 투자한 바 있음
- REBUF는 2024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·일자리 창출, 고위험 프로젝트 투자, 민간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투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

○ 우크라이나, EU 지원금 22억 유로 상실 위험(12.11)

- 우크라이나가 EU의 Ukraine Facility 금융 프로그램 2025년 4분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됨
- 올해 세 분기 연속 의무 지표 이행이 지연되어 17억 유로 규모 지원이 보류된 상태이며, 이는 2026년 미충족 재정 수요의 10% 이상에 해당
- 헤트만체프 재무위원장은 4분기 기준 총 20개 지표 중 15개가 미이행 상태이며, 연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총 22억 유로 지원금 상실 위험이 있다고 밝힘
- Ukraine Facility는 2024~2027년 투자 프로젝트에 총 93억 유로를

배정했으며, 이 중 78억 유로는 보증, 15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지원

- 4차 지원분에서는 16개 필수 개혁 중 3개가 미이행되어, 예상 지원액 45억 유로보다 15억 유로 적은 금액만 지급됨
-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올해 들어 EU 요구사항을 제때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, 법안·정책 추진 속도와 개혁 이행 여부가 향후 지원금 확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

○ EIB, 우크라 3개 주 사회인프라 에너지 현대화에 18백만 유로 배정(12.12)

- 유럽투자은행(EIB)은 우크라이나 지방 인프라 프로그램(UMIP, Ukraine Municipal Infrastructure Program)을 통해 총 1,840만 유로를 배정
-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3개 주의 학교·유치원·의료시설 등 사회 인프라 28곳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
- 볼린(Volyn)주에는 420만 유로가 투입돼 3개 핵심 의료시설의 에너지 현대화가 추진되며, 난방·단열·에너지 손실 저감 등이 포함
- 테르노필(Ternopil)주에는 1,130만 유로가 배정돼 20개 학교·유치원 개선 및 전 교육기관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예정
- 자포리자(Zaporizhzhia)주는 290만 유로로 5개 교육기관의 에너지 손실 저감 및 안전·편의 향상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실시
- 본 자금은 EU의 우크라이나 퍼실리티(Ukraine Facility) 500억 유로 규모 보증 아래 제공되며, EU의 지속적·체계적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
- UMIP는 총 4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으로, 난방·상수도 현대화,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, 폐기물 관리 개선 등 중·대도시 기반 시설 전반의 현대화를 목표로 함

○ 美, 우크라 돈바스 철수 시 NATO 5조 유사 안보보장 제공 준비(12.15)

- 美 행정부는 우크라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, NATO 제5조에 준하는 안보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, 이는 의회 승인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발표
-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

지원할 의지를 표명했으며, 현재 ▲평화협정 ▲안보보장 ▲우크라이나 재건을 각각 다루는 3개 별도 합의가 병행 협상 중

- 美 고위 관계자는 “현 제안에 따르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약 80%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고,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보장과 대규모 번영 패키지를 받는 방식으로 종료될 것”이라고 언급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 요구되는 어떠한 양보도 국민투표 또는 선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
- 미국에 전달된 우크라이나의 수정 평화안 초안은 러시아군과 우크라군 모두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고, 해당 지역을 ‘자유경제지대’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
- 또한 러시아군의 수미(Sumy)·하르키우(Kharkiv) 지역 철수를 요구하며, 기존 전선은 비무장지대(DMZ)를 따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
- 반면 크렘린은 돈바스 ‘비무장지대’에 러 국가근위대(Rosgvardiya)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해 입장 차이를 노출
- 현재까지 미국은 러시아의 새로운 평화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
- 12월 15일 베를린에서 美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, 재러드 쿠슈너,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독일·프랑스·영국 정상들이 회동할 예정으로, 향후 협상 진전에 주목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6. 1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주 간 투자구조 및 조건 협의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
- (주요동향) 현지 SPC (Grupa Azoty Polyolefins S. A.)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(11.28)

* 폴란드 법상, 두 신청 동시 접수 시, 구조조정 신청이 우선 심리되고, 파산 신청은 중단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단독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연면적 5,254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
- (주요동향) '26년 1월 이사회 부의 준비 중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 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 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심의 및 금융종결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

- (주요동향)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완료('12.11.), 이사회 부의 예정('12.23)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리스 필항 현대화 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월), 최종보고('25.12)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도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 키이우~풀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행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1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